

朝鮮時代 여성의 간호역할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¹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²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홍윤정¹ · 송지청² · 엄동명^{2, 3*}

A Women`s Nursing Role in Chosun Dynasty

Hong Yoon-jeong¹ · Song Ji-chung² · Eom Dong-myung^{2, 3*}

¹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 Nursing system in traditional society depended on more private service in family than public service. In Chosun dynasty, there were several books mentioned private nursing service to author's family.

Method : We tried to find out mentions in books above and analyze them by point of nursing services.

Result : In *Nehoon* nursing was considered as a view of royal family services, in *Gyenyeseo* as a view of neo-Confucianism, in *Gyubanggasa* as a view of obedience to parents and in *Gyuhapchongseo* there were lessons to author`s daughter and in-laws about private nursing.

Conclusion : In traditional society, women`s activities were limited. However, there were several roles, especially private nursing services to their family through this bibliographical records.

Key words : *Nehoon*, *Gyenyeseo*, *Gyubanggasa*, *Gyuhapchongseo*, private nursing, chosun.

I. 머리말

醫療制度가 오늘날과 같이 公的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인류는 스스로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했다. 傳統社會에도 公的 영역의 의료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그 혜택은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도와 환자를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정간호가 주가 되었다.

『增補山林經濟』에는 經典類 이외의 것을 업신여기는 성리학풍토로 인해 醫學을 배우려는 사람이 적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063-850-6941 Fax: 063-842-4328

접수일(2012년 10월 22일), 수정일(2012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어서 백성이 어려움을 겪으므로 “醫術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것이라 가장 익힐 만한 기술이다. 그러므로 군자 역시 어버이를 섬기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醫術을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¹⁾고 하여 私의 영역에서의 醫療活動이 傳統社會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默齋日記』에는 지방 士族인 이문건이 의학에 관심을 갖고 의서를 수집하고 약재를 모으고 주변사람을 치료까지 한 내용이 나와 있어 私的 醫療活動의 단면²⁾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傳統社會에서 醫療活動은 대개가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었고, 여성은 출산을 돕기 위해 고용되거나 의사의 보조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가정에서는 가정간호를 주로 맡아 왔다.

서양의 간호는 19세기 중엽까지 수녀나 부인들의 박애와 봉사정신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1836년 독일의 성직자 테오도로 플리드너에 의해 최초의 간호학교가 개설되면서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03년 保救女館에 간호원 양성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간호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었다. 다만 조선시대에 公的으로 여성의료 인력인 ‘醫女’를 뽑아 부녀자들을 담당하게 하였다.

太宗實錄 6년 3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濟生院에 명하여 童女에게 醫藥을 가르치게 하였다. 檢校漢城尹 知濟生院事 許道가 上言하였다. “그옥이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診脈하여 치료 하게 하면, 혹 부끄러움을 머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倉庫나 宮司의 童女 수 10명을 골라서, 『脈經』과 針灸의 法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면, 거의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 하는 덕에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 濟生院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말아보게 하였다.³⁾

이는 醫女를 양성하자고 주장하는 知濟生院事 許道의 上言으로 傳統社會에서 女性的 公的 의료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활동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국한된 의료영역이며 대부분은 私의 의료영역 안에 있었다.

전통사회 女性的 의료역할에 대한 先行研究를 살펴보면, 이민호의 ‘朝鮮前期의 專門醫女에 관한 연구’⁴⁾, 최순예의 ‘조선전기 의녀제의 성립과 의녀의 활동’⁵⁾, 문성희의 ‘朝鮮後期 醫女의 活動과 社會的地位’⁶⁾ 등이 있으나, 모두 醫女制度에 대한 研究이며, 朝鮮時代 女性的 私的 간호활동에 대한 研究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헌 속에 나타난 여성의 私的 간호활동을 考察하여 傳統社會 女性的 간호활동을 조망하고자 한다.

II. 文獻 속에 나타난 朝鮮時代 女性的 看護

1. 『內訓』에 나타난 여성의 간호

『內訓』은 成宗의 어머니인 昭惠王后가 宮中の 妃嬪과 부녀자들을 訓育하기 위해 익혀야 할 德目을 간추려 成宗6年 1475년에 펴낸 책이다. 이 책에는 조선전기 여성교육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성에게는 가정 내의 관계만을 강조하고 있고 儒敎의 덕목인 孝를 강조하면서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⁷⁾

저자가 왕의 어머니인 만큼, 이 책에는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통치 이념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성이 행해야 하는 일과 지켜야 하는 일

3) 太宗實錄 第11卷 太宗6年3月16日(丙午)

4) 이민호, 안상우. 朝鮮前期의 專門醫女에 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 韓國醫史學會誌 2008. 21(1).

5) 최순예. 조선전기 의녀제의 성립과 의녀의 활동.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2010. 29.

6) 문성희. 朝鮮後期 醫女의 活動과 社會的地位.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7) 이상미. 조선초기 내훈의 교육적 내용과 그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p.20.

1) 유중림著. 증보산림경제. 수원. 농촌진흥청. 2004. p.415.

2) 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士族의 醫療 활동. 한국한의학 연구원논문집 2007. 13(2). p.17.

들을 통해 그 시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孝親章」

사마온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모나 시부모가 편치 않으시거든 아들이나 며느리는 아무 연고 없거든 그 곁을 떠나지 말며, 손수 약을 달이거나 물에 타거나 하여 맛보고 받들어 잡숫게 하며, 아들과 며느리는 즐거운 표정을 짓지 말며, 장난치고 윙윙대지 말며, 잔치 차려 놀지 말며, 다른 일 제쳐 두고 의원을 청해 약방문을 상고하여 약 짓기를 힘써야만 하니 병환이 좋아지시거든 다시 평소처럼 행동할 것이다.⁸⁾

여기에서 대상이 부모나 시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가정 내에 환자가 생기면 돌보고 간호하는 일이 여성에게 주어졌다.

약을 달이고 먹이는 일에서부터 환자를 돌보고 잠자리 곁을 지키고 환자의 요구를 열일을 제치고 도와주어야 했던 것이다.

儒敎理念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임금에게 충을 바치는 것과 더불어 으뜸으로 여겨졌고 나아가 인의 실현에 도달하는데 인이란 모든 사람을 돌보고 이롭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아 덕을 쌓는 것이다.⁹⁾ 간호에도 이런 인의 사상을 실현하는 정신이 깃들게 되었고 여성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특히 병에 걸린 부모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로 유교 정신을 실천하였다.

2. 「戒女書」에 나타난 여성의 간호

「戒女書」는 尤庵 宋時烈이 만딸을 출가시키면서 딸을 걱정하여 修身, 齊家의 범절을 세세하게 쓴 책이다. 尤庵 宋時烈은 朝鮮 중엽의 巨儒로 仁宗 孝宗,

玄宗, 肅宗 4대에 걸쳐 국정에 참여했으며 退溪, 栗谷 이후의 조선 儒學을 대표하였다.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손에 잡히듯이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儒敎 巨頭의 입장에서 바라본 여성관과 여성이 지녀야 할 윤리가 잘 드러나 있기도 한다.

부모를 섬기는 도리, 남편을 섬기는 도리, 시부모를 섬기는 도리, 형제화목 하는 도리, 친척화목 하는 도리, 자식을 가르치는 도리, 제사 받드는 도리, 손님 접대하는 도리,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 말씀 조심하는 도리, 재물을 준절이 하는 도리,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 병환 모시는 도리, 의복과 음식 하는 도리, 노비 부리는 도리, 꾸며(貸) 받는(受) 도리, 팔고 사는 도리, 비손하는 도리, 중요한 경계, 옛사람의 착한 행실 등에 대해 언문으로 쓰여 있다.

이 모두가 여성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중에서 집안에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 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를 섬기는 도리라편」

은덕을 잊는 것도 불효요, 질병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 10)

「친척을 화목하는 도리라편」

친은 동성 겨레요, 척은 이성 겨레이다. …… 병이 들어 약을 구할지라도 주지 아니하고 …… 부귀하거든 반감게 생각하고 질병에 조심하고 …… 도와주면 어찌 감사하지 않게 여기겠는가.¹¹⁾

「자식을 가르치는 도리라편」

대개 남녀를 다부지게 하여 가르치고 행여나 병이 날까 하여 놀게 하고 편케 하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니 부디 잘 가르쳐라.¹²⁾

8) 소혜왕후著, 구인환 엮음. 내훈. 서울. 신원문화사. 2004. p.41.

9) 이길균, 주영애.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1995.

10)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12.

11)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p.18~19.

12)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21.

「재물을 준절이 하는 도리라편」
늘 남여지를 두어 질병에 약값을 하거나
상사의 소용을 하거나,¹³⁾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라편」
잠을 안 자고 밥을 안먹으며 너무 애를
써서 병이 나는 부인도 있거니와, 그는 굳
이 할 것이 아니다.¹⁴⁾

「병환을 모시는 도리라편」
사람의 사생이 질병에 있나니 병환이 극
히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이라, 내 부모나
시부모나 남편이나 병환이 제시거든 말소
리를 크게 하지 말고 소리내어 허허 웃지
말고 게으르게 걸음을 걷지 말고 일찍 자
지 말고 자더라도 늦도록 자지 말고 다른
사람이 피실 이 없거든 그 앞을 떠나지 말
고 약을 다리고 죽 다리를 손수하여 종
을 시키지 말고, 잡수지 않더라도 음식을
자주 하여 드리고, 모든 일에 지극한 정성
을 일시라도 잊지 말고, 병구완하는 사람과
의원을 부디 잘 대접하여라.¹⁵⁾

「노비 부리는 도리라편」
종이 병들거든 부모나 자식이나 아우가
있는 종은 죽살을 주고, 그렇게 돌볼 식구
가 없는 종은 다른 종을 시켜 병구완을 하
여 주고, 증세를 각별히 유의하여 물어서
고쳐주고,¹⁶⁾

「비손하는 도리라편」
부모병환에 기도하는 것은 집안의 의론
이 있거든 분명히 그릇된 노릇으로 알지라
도 집안의 의론대로 하여 못한다고 우기지
말고 하려니와, 그밖의 질병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그르고, 아니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니라.¹⁷⁾

「중요로운 경계라편」
병이 들어 음식이나 약을 안먹으면 시부
모와 남편이 깊이 근심할 것이니 억지로라
도 먹고, 병이 날가 싶거든 미리 말씀 드려
서 고치게 하고 참고 습기다가 병이 증한
후 근심되게 하면 대단한 불효요 불행한
일이니 미리 고치게 하여라.¹⁸⁾

위와 같이 가족과 심지어 집안의 노비까지 아플
때는 간호해주고 병이 나지 않게 미리 건강을 돌보는
일을 거듭해서 시집가는 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간호는 조선시대 여성의 중요한 책임이었다. 환
자뿐만 아니라 병구완하는 사람과 의원에게까지도 충
실하게 대접하였던 것은 병의 치료에서 타 의료 관계
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閨房歌詞에 나타난 여성의 간호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에 의해 창작되고 유행되
었던 閨房歌詞는 주로 영남지방 양반부녀자들에 의
해 향유되던 문학이다. 조선시대에서 여성에게 요구
되었던 가정 내 윤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일 뿐 아니라 시대가 바라는 여성상을 담고 있다. 초기의 閨房歌詞는 戒女敎訓類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사회에 적응하고 도덕생활의 실천을 긍
정적으로 받아들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의
작품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
해 다양한 소재와 내용들이 가사로 읊어지면서 정서
적이고 현실적인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떻게 시부모를 섬기고 남
편을 섬기고 종을 거느려야 하는지 등과 針線, 育兒,
治産, 出入, 恒心, 奉祭祀, 接賓客등의 전형적 패턴
으로 분류된다.¹⁹⁾

13)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27.

14)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28.

15)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p.29~30.

16)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33.

17)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36.

18)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p.40~41.

19) 이현경.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국
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p.11.

閨房歌詞에는 당시의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했던 노동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당시에 여성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에는 가정 내에 환자가 생겼을 때에 돌보는 일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시부모님 병드시거든 주야로 근심하야
밤이라도 자지말고 잠시라도 것래안자
자살 것을 자조물어 손발이 식개마라²⁰⁾

부모님 병들거든 단잠을 못자나마
청령을 더욱하여 성심껏 밧잡웁고
권속이 만흐나마 권속맛겨 두지말고
식음을 친히하고 탕약을 손쇼따려
병세를 보아가며 식음을 자조권코
누으며 안즈실적 살손드려 부치잡고
대소변 바들져지 정성을 다하여라.²¹⁾

백약이 무효로서 일분효험 전혀없다.
일구이침 사약으로 성심성의 구하것만
천도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병석을 떠남없이 눈물반 웃음으로
일편단심 시병할적 하느님전 축원하여
장생불사 비렸드니 …… 22)

환자를 돌보는 양상을 살펴보면 환자의 곁을 주야로 지키고 있으며, 병세를 보아 가며 식음을 물어서 준비하고, 손발이 춥지 않게 하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눕거나 앉을 때에 도와주는 등의 신체의 안녕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탕약을 손수 달여서 먹이고 준비하는 복약지도를 하는 등의 간호를 여성이 맡아

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의 간호사들이 하는 일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효를 강조하여 ‘백약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시대의 윤리가 간호에 반영되고 있다.

4. 『閨閣叢書』에 나타난 여성의 간호

『閨閣叢書』는 『林園經濟志』를 쓴 조선후기의 실학자 서유구의 형수인 憑虛閣 李氏(1759-1824)가 실학적인 가정학풍의 영향을 받아 당시 가정에서 여성들이 알아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엮은 일종의 여성생활백과서류이다. 『閨閣叢書』는 3부 12책으로 된 『憑虛閣全書』의 제1부이다.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유일한 木版本(高宗6年刊)인 奎章閣所藏本과 筆寫本인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정양완본, 일본 영평사소장본이 전해지고 있다.²³⁾

그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는 장 담그기, 술 빚기, 밥·떡·과줄·반찬 만들기 등이 쓰여 있는 「酒食議」, 둘째는 옷 만드는 법, 염색법, 길쌈, 수놓기, 누에치기와 그릇 때우는 법, 불켜는 방법 등이 쓰여 있는 「縫紉則」, 셋째는 농작과 원예, 가축 치는 법 등이 쓰여 있는 「山家樂」, 넷째는 태교 및 육아법과 구급방, 약물 금기 등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쓰여 있는 「靑囊訣」, 다섯째는 집을 진압하고 있는 곳을 정히 하는 법과 부적, 귀신 쫓는 일체의 속방 등이 쓰여 있는 「術數略」으로 되어 있다.

『閨閣叢書』를 쓴 의도는 서문에 잘 나와 있다.

“이 책(篇)이 비록 많으나 그 귀결점을 구한 즉 이것들이 다 건강(養生)에 주의하는 첫 일이요, 집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법이라 진실로 일용에 없지 못할 것이요, 부녀의 마땅히 연구할 바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로써 序를 삼아 집안의 딸과 며늘아이들에게 준다.”²⁴⁾

20) 권영철, 김동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朝鮮時代女性的 勞動 諸相’에서 재인용. 여성문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제19권. p.178.

21) 권영철, 김동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朝鮮時代女性的 勞動 諸相’에서 재인용. 여성문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제19권. p.178.

22) 권영철, 김동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朝鮮時代女性的 勞動 諸相’에서 재인용. 여성문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제19권. p.179.

23) 임정하. [규합총서]의 국어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6.

24)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2.

序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여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집안의 여자들에게 건강(養生)하기 위한 방법을 전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養生하는 것이란 단지 신체에 병이 없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을 개선하고 안녕한 상태로 잘 사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東醫寶鑑』에도 양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양생하는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에 잘 순응하고 몸을 단련하고 음식을 절도있게 먹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허투루 과로하지 않았다.”²⁵⁾고 하였다.

이처럼 養生이란 일상생활에서 순리에 맞게 행하는 것이므로 養生의 법을 가정에서 실천하여 가족을 돌보는 것이 여성의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憑虛閣 李氏는 말하고 있다. 즉,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돌보는 것이 여성이 담당했던 일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입어야 하며 집과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의 방법에 대해 다른 책들에서 인용한 내용은 작은 글씨로 각각 인용한 책이름을 적어 놓고 자신만의 경험은 새로 보태어 新增이라 하여 세세하게 적어 놓았다.

「靑囊訣」에서는 가정에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간호

‘胎教’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조선시대 여성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신 중에 주의해야 할 일, 난산과 분만시 응급상황일 때 대처하는 방법, 아이 기르는 방법, 아이의 질병치료 등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이 나온다.

무릇 아기 가진 아낙네 옷을 너무 덥게 말고, 밥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술을 너무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망녕되게 약

쓰지 말고 …… 오래 누워 있지 말고 때때로 거닐어라.²⁶⁾

아기 기르는 열가지 방법
제일요법 등을 따뜻하게 함이요
제이요법 배를 따뜻하게 함이요
제사요법 발을 덥게 함이요
……

제주요는 경분주사 든 약을 함부로 쓰지 말며
제십요는 자주 목욕 감기지 말 것이다.²⁷⁾

임신했을 때 조심해야 할 내용으로 너무 덥게 옷을 입지도 말고 과식하거나 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을 열거해 놓았으며,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아이의 등, 배, 발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자주 목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 救急疾患에 대한 간호

둘째는 갈, 도끼에 다치거나 벌레나 뼈를 삼켰을 때, 끓는 기름에 데었을 때,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등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등이 나온다.

끓는 기름에 덴 데
기름에 덴 데 한수석가루 기름에 개어 붙이라. 기름에 덴 데는 옛 사른 것이 낫다.²⁸⁾

뱀 물린 데
뱀 독은 석응황이 으뜸이니 곱게 갈아 창구에 바르면 곧 낫고 상처즙에 응황가루 개어 붙여 독물을 흘리면 아픔이 낫고 ……²⁹⁾

26)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325.
27)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337.
28)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347.

25) 許浚 著.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4.

끓는 기름에 데었을 때는 한수석 가루나 엿 사른 것을 써서 화상을 치료하라는 것이며, 뱀에 물렸을 때는 석용황 가루를 쓰거나 상추를 즙을 내어 옹황 가루를 개어서 붙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 일상질환에 대한 간호

셋째는 이얌이, 이질, 안질, 식중독, 두창 등 자주 생기는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 나온다.

아무리 독한 감기라도

사흘 안에 좋은 술을 끓여 푸른 불이 난 후에 많이 먹고, 생강을 넣어 끓여 먹으면 더 좋다. 술 못 먹는 이는 취하지 않고 화해(和解)가 즉시 된다.³⁰⁾

이질에

촉규화 세 송이씩 달여 먹기를 세 번 하면 나오니, 흥백꽃을 적백리(赤白痢) 빛대로 먹는다.³¹⁾

뱀주지가 났을 경우 창이줄기와 잎을 태운 재를 식초에 개어 바르거나 쇠비름을 짓이겨 바르거나, 국화잎을 찢어 즙을 바르는 방법, 이질에 걸렸을 때 촉규화(접시꽃)를 달여 먹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4) 환경위생에 대한 간호

넷째는 약에 대한 성미와 약을 먹을 때 꺼려야 하는 것, 약을 잘 못 먹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음식에 있는 독성, 서로 피해서 먹어야 할 음식 등 飲食과 藥餌에 대한 지식을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벌레를 없애는 방법 등 환경위생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부엌에 온갖 벌레 없애는 법

삼월 초이틀이나 청명전 이틀에 닭을 때, 묵은 승냥으로 솔과 일용하는 부엌 살림살이를 다 씻으면 온갖 벌레가 없으니 신표하다.³²⁾

청결을 중시하는 조선 성리학의 개념은 이 책 뿐 아니라 조선시대 여성의 규범서인 『女四書諺解』에서도 ‘쓰레받기를 받들고 비를 들고 채와 먼지에는 물을 뿌려 쓸고, 집안에 흩어진 것을 모아서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상쾌하고, 온 집안이 빛나고 밝을 것이니 가정을 더럽게 하여 집안과 뜰에 흠이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³³⁾고 하여 집안의 청결유지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위생환경이 건강과 관계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간호에 관련된 활동

또한 「術數略」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해 다소 주술적인 내용을 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병마를 귀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양에서도 마녀가 저주하여 질병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었고 점성술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때까지는 무속이 의학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약을 먹는 시간이나 치료하는 시간 등을 정하는데도 점술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憑虛閣 李氏는 歲時와 禁忌를 이용해서 질병과 우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적어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미신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 또한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록해 놓은 것이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여성은 임신, 육아, 구급치료, 집안의 위생을 담당하였고, 생활에서 歲時나 禁忌를 지켜 질병을 예방하였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약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게 지도하

29)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350.

30)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408.

31)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364.

32) 빙허각이씨著. 정양원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390.

33) 이덕수譯. 내훈, 女四書. 亞細亞文化社. 서울. 1974. p.37.

였다. 또한 가족 뿐 아니라 노비들의 건강도 집안 여성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고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 있어 타 의료인과의 협력도 살펴야 했는데 타 의료인과의 협력과 소통은 현대 간호사들이 해야 할 직무와 일맥 상통한다.

『閨閣叢書』는 이후 방각본 목록에서 배포범위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책의 배포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에게 의료지식을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⁴⁾

IV. 맺는말

의료제도가 현재처럼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는 의사들이 발생하는 환자를 담당하기에 그 숫자가 열악하였다.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도 충분하지 않았다. 사정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의료혜택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지만 지방은 부족하였고 향촌에 기반을 둔 사대부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다.³⁵⁾

본 연구를 통해 朝鮮時代 女性도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상황에 대처해왔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內訓』에는 王室의 입장에서 仁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써 간호활동이 다루어지고 있었고, 『戒女書』에는 儒敎的 입장에서 女性이 해야 할 도리 중 가족과 집안 구성원에 대한 간호활동이 잘 드러났으며, 『閨房歌詞』에는 일반백성들이 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과정 중 女性의 간호역할을 담고 있고, 『閨閣叢書』에는 집안의 딸과 며느리에게 남긴 책안에 의료 지식이 담겨 병자를 돌보는 데에 정성이나 마음가짐이외에 지식을 겸비하여 임하도록 권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민간보건의료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이를 위해 책을 써서 전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환자를

돌보는데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였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생활과 환경위생의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건강 뿐 아니라 산전, 산후의 여성의 건강을 돌보고 집안 내 구급상황에 대처하고 음식을 다루는 여성으로서 食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자 했으며 가족들에게 자주 생길 수 있는 질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서를 통한 지식을 배우는 것 뿐 아니라 자신만의 치료경험을 다른 여성과 공유하고자 책을 쓰기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간호역할을 담당했었나를 살펴보았는데, 그 마음가짐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김으로써 현대 우리가 풀어야 할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感謝의 글

이 연구는 2011년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參考文獻

<논문>

1. 김두중. 近世朝鮮의 醫女制度에 關한 研究.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 1. 숙명여자대학교. 1962.
2. 김무식. 한글편지글에 반영된 조선조 여성의식과 문화. 태평양학술문화재단연구논문집 2007. 16.
3. 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士族의 醫療 활동.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 13(2). p.17.
4. 이상미. 조선초기 내훈의 교육적 내용과 그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p.20.
5. 이현경.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p.11.
6. 권영철, 김동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朝鮮時代 女性의 勞動諸相. 여성문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19. p.178, 179.

34) 원보영. 전통사회의 질병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대응. 실천민속학연구. 실천민속학회 2005. 9(6). p.193.

35) 김대원. 18세기 민간의료의 성장. 한국사론 2006. 39. pp.124-125.

7. 임정하. [규합총서]의 국어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6.
8. 원보영. 전통사회의 질병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대응. 실천민속학연구. 실천민속학회. 2005. 9(6). p.193.
9. 김대원. 18세기 민간의료의 성장. 한국사론. 2006. 39. pp.124~125.
10. 이민호, 안상우. 朝鮮前期의 專門醫女에 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 韓國醫史學會誌. 2008. 21(1).
11. 최순예. 조선전기 의녀제의 성립과 의녀의 활동.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29. 2010.
12. 문성희. 朝鮮後期 醫女の 活動과 社會的 地位.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단행본>

1. 유중립著. 증보산림경제. 수원. 농촌진흥청. 2004. p.415.
2. 소혜왕후 著, 구인환 엮음. 내훈. 서울. 신원출판사. 2004. p.41.
3. 이길균, 주영애.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1995.
4. 우암 송시열著.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12, 21, 27, 28, 33, 36. pp.18~19, 29~30, 40~41.
5. 빙허각이씨著, 정양완譯.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1997. p.2, 325, 337, 347, 350, 353, 361, 390.
6. 許浚 著.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4.
7. 이덕수譯. 내훈, 女四書. 亞細亞文化社. 서울. 1974. p.37.

<사이트>

1.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